

제 23 호

제 3 부활주일

1973. 5. 6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강론】



평화를 빕니다

범 석 규 신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 기쁨을 알리실 때마다 먼저 “당신들에게 평화를 빕니다.”하고 첫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인사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간단하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의 사명을 받는 사람에게 평화!”(루가. 2, 14) 이 말씀은 천사가 제일 먼저 밤새우며 일하던 목동들에게 구세주탄생을 알리시며 천상에서 부른 환호의 노래입니다.

“당신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들을 보냅니다.”(요한. 20, 21) 이 말씀은 겁에 질려 문을 닫아 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상의 천사의 환호의 노래나 부활의 기쁨을 알리시며 하신 말씀인 “평화”는 강생구속의 결과로서 얻어주신 선물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에 평화를 누리야하며, 이평화를 얻기 위하여도 비오니, 그들을 비추시어 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열매맺게 도와 주소서. ◎

■ **맺음기도** 주여 비오니, 우리 모두가 당신 안에 하나님을 이루어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 **부활 감사송**
 ◎ **영성체송**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시니,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의 용서를 받으리라는 기쁜 소식이 만 백성에게 전파되리라. 알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은 반드시 기쁨의 지출이나 놀라운 일만은 아닙니다. 즐거움을 주는 것도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말할 때마다 조심성 없이 웃고 한다면 하루에도 수없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 줄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평화의 사명은 이런 양식으로 우리 생활속에 심고 이런 방법으로 전해야 하겠습니다.

전동 천주교회 주임 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 **입당송** 은 땅은 춤추며 하나님을 기리라. 그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여라. 알렐루야.

□ **제1독서** (사도행전 3:13-15, 17-19, 성서 P. 270) 생명의 창조주를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분을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 **찬가송** ◎ 주여 당신 얼굴의 밝으신 빛을, 드높이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너희는 알라, 주님은 충실된 자를 자별하게 다루시나니, 내 기도할 때이면 주께서 들어 주시리라. ◎

□ **제2독서** (요한 1서 2:1-5, 성서 P. 542)

우리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라.

□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여 우리에게 성서를 열어주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제, 우리 마음 뜨겁게 하소서. 알렐루야.

□ **복음** (루가 24: 35-48, 성서 P 200)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반드시 삼일만에 부활하실 것이었다.

□ **신자들의 기도**

1. 참으로 부활하신 주여, 당신의 부활에 힘입은 우리들의 신앙이 항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부활로 용기를 주신 주여, 질병과 가난, 정신적인 고민 가운데 살고 있는 당신의 아들들을 잊지 마소서. ◎

3. 진리의 성신이여, 연수회에 참가하고 있는 사제들을 위하여도 비오니, 그들을 비추시어 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열매맺게 도와 주소서. ◎

■ **맺음기도** 주여 비오니, 우리 모두가 당신 안에 하나님을 이루어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 **부활 감사송**

□ **영성체송**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시니,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의 용서를 받으리라는 기쁜 소식이 만 백성에게 전파되리라. 알렐루야

※ 이 주간의 성경 ※

7(월) 독서 (사도행전 6: 8-15, 성서 P. 277)

복음 (요 한 6:22-29, 성서 P. 217)

8(화) 독서 (사도행전 7: 51-59, 성서 P. 281)

복음 (요 한 6: 30-35, 성서 P. 217)

9(수) 독서 (사도행전 8: 1- 8, 성서 P. 282)

복음 (요 한 6: 36-40, 성서 P. 218)

10(목) 독서 (사도행전 8: 26-40, 성서 P. 283)

복음 (요 한 6: 44-52, 성서 P. 218)

11(금) 독서 (사도행전 9: 1-20, 성서 P. 284)

복음 (요 한 6: 53-60, 성서 P. 219)

12(토) 독서 (사도행전 9: 31-42, 성서 P. 286)

복음 (요 한 6: 61-70, 성서 P. 219)

<행사 안내>



성 소 주 일

복음을 갖고 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고운고
(로서마10:15)

다음 주일(5월 13일)은 제10회 성소주일입니다
“교황께서 이 성소주일을 설정하신 취지는 어디까지나
하느님 백성에게 특별한 모양으로 봉사하라고 부르시는
온갖 성소를 위해 종교적 행사를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사제 성소 뿐 아니라 수도성소 및 전교를 위한 재속 수
도성소 등을 망라해서 특수하게 교회에 이바지하도록
불림을받는 모든 이를 위한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날입
니다. (경향잡지 5월호, P. 8)

본 교구는 금년을 사제 양성 후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
는 해로 정했습니다.

이에 전주지구 교육 분과위원회에서는 금번 성소주일
행사를 합동으로 가져 성소문제에 신기원을 마련해 보고
자 합니다. 교형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합동 행사 안내

- 1. 주일학교부 (5월 13일, 중앙성당)
 - ① 사생 대회 (오후 1시반)
 - ② 미사 (오후 3시)
 - ③ 특별 강론
- 2. 중·고등부 (5월 13일 오후 3시, 가톨릭 센터)
 - ① 미사
 - ② 영화
 - ③ 사진 전시회
- 3. 노인부 (5월 14일 오후3시, 가톨릭 센터)
 - ① 성소 증가를 위한 묵주의 기도 (오후 3시)
 - ② 말씀의 전례
 - ③ 특별 강론
- 4. 일반부 (5월 14일 오후8시, 가톨릭 센터)
 - ① 말씀의 전례
 - ② 특별 강론
 - ③ 영화

□ 양지쪽 □



어린이와 물오리

—물오리가 날 적부터 해염을 치듯이 어린이들은 나면
서부터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천성을 지니고 있다. 어린
이들이 하는 일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물오리의 해염
을 금하는 거나 다름 없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그 천성을 옆에서 도와줄 것이 중요하다.

어제는 어린이 날이었다. 누구에게나 그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어린이 날은 어린이의 것만은 아닐 것이다. 어
른들에게도 모깃불을 피워 놓고 명석에 누어 삶은 강
이를 뜯어먹던 어린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다 부서진 소
쿠리를 들고 냇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물고기를 잡던 때
도 있었고, 빈터에 모여 앉아 흙속에 손을 넣고 두드려
대며 도깨비집을 만들던 어린시절이 있었다. 꼬빠이오
비스켓 대신에 감자를 짓이겨 만든 옛과 썩개떡을 먹던
어린 시절이 어른들에게도 있었던 것이다. 그 어린 시절
이야말로 정말 값지고 귀한 때였다.

어린 아이의 눈을보아라. 그 맑은 빛, 티없이 순수한
그 눈방울이야말로 우리를 마음의 본향(本郷)인 것이다.
그렇게도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이기에 일찌기 영국 사람
들은 <아이들이 많은 집에는 악마가 무력하다.>고 말했
다. 또 예수께서도 순진한 어린이들을 축복하시어 하느님
의 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임을 분명히 말씀
하셨다.

어린이 현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앞날을 이어나갈 사
람인 그들의 마음을 귀히 여겨, 옹고 아름답고 썩지
게 자라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한다. 그런데 어쩌
가? 혹시 반쪽만 성장하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는 없는지. 어른들의 애완물(?)이 되어, 부모님들의
영심에 녹아나 역지 피아니스트나 발레리나로 자라나
아이들은 없는지. 아니, 그렇게 키우는 부모들이 누군
아이들의 적성과 소질을 무시한 채 낱이 하나까 나도
킨다는 어른들이 우리 주위에 더러 있는 것 같다.

이 성성한 오월은 정말 좋은 때이다. 어린이 날이 있
고, 어버이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오월은 청소년의 달이
요 어머님(聖母)의 달이기도 하다. 금년에는 성소(聖召
Vocation)주일까지도 이 오월에 있다. 이 화창하게 살
움직이는 오월에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갑)

지성인의 필독서
계간 전 망(展望)
광주 대진 신학 대학 발행

성서와 성물은.
성 바오로 서원
중앙성당옆 (전화 7398)

※각종 양복, 양장지 도산매※

☆최신형 드레스 및 신부 화장☆

신 우 라 사

서울은행 전주 지점 옆
(전화 2212 7071)
김 병 구 (빈첸시오)

결혼 미용실

교우들에게 특별 봉사

이현주 (테레사)
전화 6794
중앙성당 앞

* 대화의광장

* 잔디밭



五월은 어머니 달

김 영 구 신부

(가) 어머니, 이는 가장 큰 명예이다.

성령을 통하여, 아담은 그의 아내를 "하와" 곧 "어머니"라는 훌륭한 이름으로 불렀다. 그는 여자라고 말하지 않고, 어머니라고 말하여, 거기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말을 더 첨가했다. (창세기 3장 20절) 여기에 모든 생존해 있는 인류의 근원이 되는 여성의 참된 특질 (Ornamentum)이 있다.

말은 간단하나, 테모스테베스도, 키케로도, 꾸밀 수 없는 웅변이다. 그러나 이 말은 가장 웅변적인 성령에 의하여 된 것이며, 또 우리의 첫 부모에 어울린다.

(나) 마리아는 성경 중에 제일 모범적 모성이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유명한 부인임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간절히 구하여 사무엘을 얻었다. 사무엘이란 말은 <하느님이 들으셨다>는 뜻이다. 사무엘이 6, 7세 될 때 까지는, 그 어머니가 양육하다가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헬리에게 맡겨 그는 유명한 선지자도 되고, 대 제사장도 되게 했다. 그 어머니의 노력이 컸던 것이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도 유명하나, 마리아와 한나 같지는 아니했다. 그는 예수께 내 두 아들을 좌우 정승의 자리에 앉게 하여 달라고 청하였다. 이같은 야심은 분쟁을 이르기었다. (마태오 20장 21절) 그러나 마리아는 성질이 이와 다르며, 한나와 같이 진실하고 경건하였다.

마리아는 온 인류의 어머니의 대표가 되고, 모범될 여러가지 특징이 있어, 모든 어머니들이 배울 바 많다.

① 이는 진실히 믿고 경건하였다.

- ② 근면, 성결, 사랑으로써 모든이의 전형이었다.
 - ③ 자기는 뒤에 앉아, 그 아들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
 - ④ 그는 집에 있으면서 밭담 기도하였다.
 - ⑤ 그는 아들의 수고와 꾀박에 동정으로 참여하였다.
- 마리아의 전기(傳記)중에 배울점이 두가지 있다.

1. 남편된 자는 어머니의 은혜와 공덕을 생각하고, 효양으로 그 마음을 위로할 것이다.

2. 그 어머니된 이는 마리아의 의범(義範)을 본받아 그 아들을 보양하여 귀한 인물을 만들면, 하느님 앞에서 그 어머니의 상은 클 것이다. (에베소 6장4) 그러나 맹목적인 모성에는 파멸의 기초이다.

(다) 어머니란 말은 모든 말 중에 가장 정다운 말.

어느나라, 어떤 민족에 있어서나 <어머니>라는 말은 모든 말중에 가장 정답고, 반갑고, 거룩하고, 따뜻한 말이다. 사람은 그 아버지와 하느님을 배반하고, 모든 죄 중에 빠질지라도, 그 어머니는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그 어머니의 권면이나 기도와 눈물로 인하여 회개하는 일이 많다. 어머니의 말씀, 그의 팔은 부드럽다. 그래서 달콤한 잠은 그 팔 안에 안겨 있는 어린애를 축복한다.

(라) 위인 배후에는 반드시 험모가 있다.

(출애굽기 6장 20)

3세기에 저명한 신학자 성 아우구스티노의 뒤에는 신앙 두터운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는 것은 모를 사람 없다. 실로 신앙부터는 크리스찬 어머니가 있고서, 크리스찬 가정이고, 크리스찬 가정이고서 크리스찬 위인이 나는 것이다.

인류 문화의 기점(起點)은 가정이고, 가정의 주인은 어머니이다. 물론 아버지는, 그 한 가정의 주권자가 되지 만 아버지는 대개 생계(生計)와 사업을 위하여 밖으로 나가게 됨으로, 가정에서 온갖 내무를 주관하는 것은 어머니의 직분이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자녀를 낳는 것과 또 장구한 세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높고, 어머니는 여자보다 높다는 말도 있다.

(천주교 교동 1가 132~4)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③3498)

- 7일 (월) 외국 문화 교실 (불어, 오후 5~6시)
- 8일 (화) 외국 문화 교실 (독어)
- 10일 (목) 외국 문화 교실 (독어)
외국 문화 교실 (불어, 오후 5~6시)
- 11일 (금) 외국 문화 교실 (독어)

알 림

젊은이의 광장 (성경교실) 임시 휴강

담당하시는 유 장훈 신부님이 서울 연수회 참석 관계로 5월 1일부터 당분간 휴강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축 부 활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교사동 1가 오거리동 동아여관앞 전화 ②6094

* 축 부 활 *

동남 샵프 { T V
냉장고
선풍기

전주대리점

전화 ②8121

여요셉(운창)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1. 5월의 마돈나 꾸리아 옥외 행사

창설 10주년 기념식을 겸한 옥외행사를 갖고자 하오니 부디 오시어 성모님의 은덕을 찬미하는 즐거움 잔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때 : 5월 13일 10시반 (9시반 중앙성당서 대절 버스가 출발함.)

곳 : 전당리 공소

-오월의 마돈나 꾸리아 단장 강 베드로 올림

2. 묘지 관리 위원회 (오늘 오후 3시 현지 답사)

① 신공동묘지는 구공동묘지의 사용이 끝난 뒤부터 사용함.

② 관리위원은 현지 답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람.

3. 경향잡지 5월호

교구 소식, 주교님 인터뷰 기사, 성체수녀원 탐방기사 등 교구 기사가 많습니다.

(소) (시)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중순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사제관)

2. 주일학교 소풍 및 어버이날 행사

오늘 9시부터 덕진 중혼관에서 행사하오니 학부모님은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어린이-박종명(요셉)

장한 아버지-이두만(누가)

장한 어머니-최덕순(테레사)

3. 대학생 야유회

① 때 -5월 13일 오전 8시 반 출발

② 장소-구이면 오봉산 (운암댐)

③ 준비-회비 250원, 도시락, 건전한 마음과 몸가짐

4. 고등학생 월례회(5. 5<토>, 특전미사후)

5. 사제양성 후원비 적금 불입 요망

6. 본당 신부님의 가정방문 및 축식

5. 8(화)-서신동 5. 9(수)-진부 2구

5. 10(목) -서노중동

□지난 주일 봉헌금 34,212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이태영

1. 프란치스코회 재속 형제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2. 신용 조합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미사후)

3. 건진 성사 받을 분 등록 바람 (5월 15일까지)

4. 예비신자 등록 바람 (5월말까지, 수녀님께)

5. 애령회 4월말 보고

① 3월말 잔액 442,591원

② 이자 수입 13,200원

③ 지출 3,000원

④ 잔액 452,791원

※부활 축일 영세자들과 전입 교우들은 애령회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금은 세대당 500원 이상, 본당 사무실에 접수함)

□ 지난 주일 봉헌금 12,016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1. 평일 미사 없음 (5. 8<화>~10<목>)

본당 신부님께서 해령 교수 초청 강연회에 참석차 광주에 가심.

2. 35사단 주일미사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참석할 교우들은 사무장님께 신고하십시오.

3. 신용조합 임원회 (5. 12<토> 오후 8시)

임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람

□지난 주일 봉헌금 5,697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레지오 마리아 옥외행사 (오늘 공식미사후)

2. 성모 성월 공동 기도

매일저녁 (오후 8시) 후 성모상 앞에서

※ 본당 신부님 서을 성모병원 입원 신부님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10,615원

지난 주일 성미 2말 2되,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철 사도 회장 육낙철

1. 미사시간 변경

아침미사-6시, 저녁미사-오후 8시

2. 사도회 월례회 (오늘밤 미사후)

3. 자모회 (오늘 공식미사후)

4. 예비신자 교리 (공식 미사후)

5.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6. 4월말 결산 보고

① 수입부 319,424원 ② 지출부 249,402원 (교구 납부-150,000원, 경상비-99,402원)

③ 잔액 72,022원

④ 현재 주교관 미납액 57,000원

⑤ 금년도 주교관에 납부해야 할 교무금 453,100원

●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석장리 한용만씨 별세 (5월 1일)

□ 지난 주일 봉헌금 9,017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밤 미사후, 사제관)

2. 레지오 마리아 옥외행사 (오늘 공식 미사후)

3. 주일학교 소풍 (오늘 9시 미사후, 은석골)

4.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① 공식미사후-수녀님 지도

② 저녁미사후-신부님 지도

5. 교무금 내는 일에 협조합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30,038원, 감사합니다.

5월은 성모성월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사제 양성 후원 기금 예약 현황

김 제 천주교회	100,000원
남 원 천주교회	150,000원
대 야 천주교회	200,000원
복 자 천주교회	1,265,000원
서학동 천주교회	752,400원
강가타리너, 정양동 (각 3천원)	

감사합니다.

누계	8,826,400원
전 동 천주교회	1,840,000원
풍남동 노영남(5만원)	
중 앙 천주교회	2,519,000원
진 안 천주교회	1,000,000원
월명동 천주교회	750,000원
화 산 천주교회	250,000원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 양성 후원회